



임실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의 취업제공과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탄력'

임실군, 마을가꾸기 등 소외계층 생계유지·소득 창출 기여

임실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의 취업제공과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가꾸기 등 지역공간개선형사업이 일자리 소외계층의 생계유지와 소득창출에 기여하면서 올해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군은 운안면과 오수면에서 제안한 2017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8천800만원으로 운안면 호수공원 꽃길조성사업에 5천900만 원, 오수면 의견공원 주변조성 및 정비사업에 3천710만원이 각각 투입

된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운안면과 오수면 각각 15명과 7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이 중 임실군은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공간과 시설활용사업인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에 선정,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에는 운안 물안개길 걷터 조성사업과 오수면 주변길 조성사업을 전개해 1일 15명의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러 작년에 2개소 사업장에 취약계층 2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잖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특히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또한 관내 호수공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꽃길 경관조성과 쾌적한 환경가꾸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관광명소 활성화 등 일석이조 효과를 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우리 군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며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남원시, 10일까지 20명... 만18세 이상 중위소득 60%이하

남원시가 2017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명을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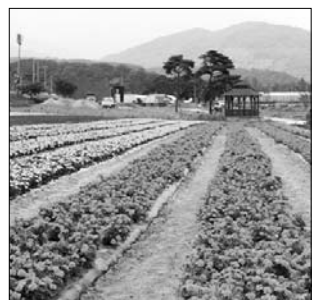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및 구서도역 농촌체험학습장 경관 조성과 합파우 소리체험관 체험단 운영 및 지리산둘레길 길동무 등 7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위소득(총가구의 소득순위 중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이하 이면

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주소지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만65세 미만의 경우(주 30시간 이내 근로) 월평균 급여 104만원, 만65세 이상인 경우(주 15시간 이내 근로) 월평균 급여 56만원정도 지급한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및 허브체험관광농원 경관조성 사업은 허브 꽃밭 및 자생화 포토존 조성 등으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품남원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620-6338)으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83억 투자 주거환경 대폭 개선

농촌주택개량·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설치 추진

순창군이 올해 농촌주거환경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90동, 빈집 정비 92동,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5동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새뜰마을사업으로 풍산두지지구, 인계삼초지구, 팔덕백안마을에 총 27억여 원을 집중투자해 주택정비는 물론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총예산은 83억 3천만원이다. 지난해 보다 2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상반기 80%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해서 3일에는 11개 읍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사업 회의도 개최한다.

군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주택 150㎡이하로, 대출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70% 수준까지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한다.

금리는 연리 2%다.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 일때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일반지방에는 백만원, 슬레이트 지붕 2백 5십

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저소득계층, 65세이상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의무임대 5년동안 기존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동당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 귀촌인 등이 농촌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하는 사업이다"며 "올해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본격 채취

이노·각종 성인병 예방 효과 높아

땀에 이로운 물(裨利水)이라고 칭해진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었다.

지리산남원 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 법인(대표 주기용)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라인 작업을 마무리 하고,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예년보다 커 고로쇠 채취에는 이상적 조건이 형성되어 수액채취에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고로쇠 약수 채취는 우수를 전후해 해발 600m이상의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20cm이상의 고로쇠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고로쇠 채취기간 동안 150여 농가가 10여여명의 농가소득을 올린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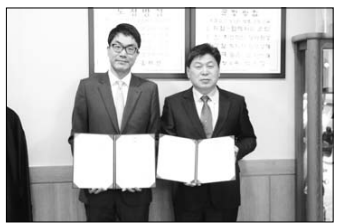
고지대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산 고로쇠는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강하다. 땀에 좋아 '골라수'로 불리는 고로쇠는 이노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 고로쇠약수는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봉 일원이 고로쇠나무의 군락지로 형성되어 고로쇠약수의 원산지라 불리우고 있으며, 공기와 물이 맑고 토질이 좋아 맛이 달콤하면서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2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는 오는 3월 4일(토) 10시 산내면 뱀사골(반선관광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석정웰파크병원-고창군보건소 협약

석정웰파크병원(원장 김정하)과 고창군보건소(소장 노창환,방문보건팀장 이영희)는 지난 1일 오후 3시에 김정하 원장, 조점용 총무부장, 최 용 홍보과장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3층 보건소장실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을 맺었다.

고창군 보건소 노창환 보건소장은 "지역사회내에 치매등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시면서 석정웰파크병원이 지역사회내 많은 의료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이에 석정웰파크병원 김정하 원장은 "치매조기검진사업등 보건소와 연계되는 많은 사업에 석정웰파크병원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석정웰파크병원과 고창군 보건소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국민건강증진에 매진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입학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육성을 목표로 오는 14일까지 2017년 명품농업대학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제8기에 편성된 본과정은 4개 과정(특용작물, 박과채소, 농식품, 딸기)에 각 40명씩 160명을 꾸렸다.

특용작물반은 하수오, 감초, 당귀, 더덕 등을 포함 10개 작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박과채소반은 멜론, 오이 농식품반은 가양주, 식초, 전통장류 딸기반은 재배기술과 유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각 과정마다 공통과목 10%, 이론 40%, 현장·실습50%를 구성해 집합식 이론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느껴보는 오감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신청자격은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 남원시 농업인 및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며 이백면소재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산불방지 대응태세 돌입

입야가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임실군은 산림 건조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하고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군은 평일 14명, 휴일 26명의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40세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진화대를 조직했으며 12개 읍·면 등 총 13개소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개소 36명을 운영하며 산상감시원 25명을 비롯한 산불감시원 65명을 추가로 모집해 예방 및 방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산불지휘차를 비롯한 9대의 차량과 등짐펌프 300개, 방염텐트 50개, 중형펌프 2개, 진화호스 6롤 등 투입될 장비관리와 철저를 기하며 즉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SNS 통해 현장 중심 행정 펼쳐

황숙주 순창군수가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황군수는 2016년부터 SNS를 시작했다. 숨어있는 군민의 소리를 보다 더 많이 듣고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댓글을 남길 정도로 군민과의 소통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황군수는 그날의 주요 활동 내용을 관련글과 여러장의 사진을 함께 올려 군민과 소통하고 있다. 군민들과 군수가 직접 만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않다. 군민과 군수 모두 일본일조를 쫓아 가면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이제 SNS를 통해 군수에게 직접 언제든 군정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사항, 사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황군수는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지시도 내

리고 처리 결과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에 군민 한분이 황군수 SNS에 순창읍 공용버스터미널에 도청호보 모니터는 있는데 군정홍보 모니터는 없다는 글을 올렸다. 황군수는 해당부서에 관련 글을 전달하면서 효율적 행정정보 전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군은 의견을 존중해 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군민 다중집합장소에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모니터 30여대를 2월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은 소리없이 다양한 민원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황군수는 "SNS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군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한다"며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순창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 연장

생후 0~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원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간을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출생하는 재신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2016년 출생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월소득 3인가구 1,456천원)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가 해당되며,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된다.

지원비용은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구

입은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날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신청일 영아의 월령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지원하며, 출생일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부부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등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유수유실(☎620-7942/7955)로 문의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